

# 문학, 서구의 눈에 비친 아시아를 만나다

# 조선통신사선 타고 해양유적 문화 탐방

ACC·아시아문화페스티벌 조직위  
9월 14일까지 '아시아문학아카데미'  
김남일·김완 작가 등 초청  
"아시아문학 이해 도움 줄 것"



김남일 소설가 | 이진 소설가 | 김완 시인

'그들'은 아시아를 어떻게 봤을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서구다. 오리엔탈리즘은 아시아를 바라보는 서구의 대표적인 시선이다. 원래는 '동양학'을 의미하는 개념이었지만 18세기 이후에는 '동양에 대한 서구의 왜곡과 편견'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용어가 됐다. 서구의 눈에 비친 아시아를 주제로 한 문학아카데미 강좌가 열려 눈길을 끈다. 문학, 역사, 종교, 철학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매개로 아시아 문학의 정체성을 묻고 어떻게 일구어 낼 수 있는지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아시아문학아카데미는 올해 가을에 열리는 아시아문화페스티벌 사전 행사로 열리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박태영)과 아시아문화페스티벌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한승원)가 기획했다. 이번 아카데미 주제는 '그들이 본 아시아-서구의 눈에 비친 아시아'이며 9월 14일까지 독립서점 '책과 생활'에서 진행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좌는 아시아문학의 이해 폭을 넓혀주고 문학적 소양을 쌓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로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확대됐던 터라 문학을 매개로 아시아문학의 담론과 가능성을 고민해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먼저 1-4강은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지난 8일에는 소설

가 김남일이 '배를 타고 아시아에 온 작가들-그들이 본 아시아'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났다. 15일과 22일에는 문학평론가 소중민이 각각 '서구의 눈에 비친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읽기', '서양을 뒤집은 '일본 열광'의 정체'를 주제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29일에는 문학평론가 고영직이 '조지오웰, 식민지 열대에서 길을 잃다'를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할 계획이다. 5-9강은 독립서점 '책과 생활'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광주지역 아시아문학 저널 확대와 아시아문학 내일을 모색할 예정이다. 7월 6일은 윤준 배재대 교수가 '서양이 바라본 동양-폴리지에서 T.S. 엘리엇까지'를 이야기한다. 13일에는 소설가 이진이 '주여, 고난의 순간에 어찌하여 침묵하십시오?'를, 20일에는 광주전남 작가회의 회장인 김완 시인이 '모두가 흰옷만 입는 이상한 나라에 온 파란 눈의 지성인들'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중국과 영국 문학을 토대로 두 나라를 탐색하는 시간도 있다. 8월 31일에는 이희경 전남대 교수가 '중국을 중국인 뿐'을, 9월 7일에는 오은영 한국외국어대 교

수가 '알아요? 착한 영국인 같은 건 없습니다'를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할 계획이다. 마지막 10강은 좌담회를 통해 시민들을 만난다. 소설가 채희운 진행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그들의 아시아에 대해서'를 주제로 다채로운 생각들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아시아문학아카데미 세부 계획을 기획했던 김남일 소설가는 "우리가 아는 작가들, 예를 들어 헤겔, 마르크스, 헤르만 헤세, 조지 오웰 등도 아시아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광주가 아시아문학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게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프로그램은 ACC채널(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게시된다. ACC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강연에 대한 의견과 감상,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길 수 있는 댓글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62-601-404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해양문화재연구소, 선상체험 프로그램 13일~11월 25일 운영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에도 막부에 파견한 대규모 사절단을 일컫는다. 선조 40년(1607) 사신을 파견하면서 정식 시작된 조선과 일본 교류는 이후 1811년까지 약 200년에 걸쳐 12회의 문화교류를 펼쳤다. 당시 사절단을 운반하던 선박이 바로 통신사선이다. 문헌에 따르면 최고의 조선기술로 건조된 최대선박이다. 조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궁궐단청으로 의장을 했다고 전해온다. 실물 크기로 재현한 조선통신사선을 타고 해양 유적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규영)는 통신사선을 타고 선상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운영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통신사선을 타고 떠나는 해양유적 문화기행', '통신사선을 타고 '뱃길-물길' 탐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는 목포지역 문화재와 14세기 청자 운반선인 달리도선 수중발굴 현장 탐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통신사선 역사와 풍악수 선상공연, 전통 연희놀이와 통기타 선상공연 관람과 국악 배우기 등도 진행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달 2회, 모두 12회 운영될 예정이다. 후자는 '신안선 해저발굴' 현장과 '진도명량대첩로 해역 수중발굴' 현장을 통신사선을 타고 둘러보는 여정이다. 8월 22일·29일(토요일) 2회 진행되는 달리도선과 신안선 발굴현장을, 29일은 진도군과 진도선과 명량해역 발굴현장을 둘러본다. '해양유적 문화기행'은 24일까지 신청(회당 50명) 받으며, '뱃길-물길 탐방'은 8월 3일부터 21일까지 접수(30명·초등생 이상 자녀와 가족)하면 된다. 사회배려계층 20명도 초청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해양문화재연구소는 재현된 조선통신사선을 타고 해양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13~11월 25일 운영한다.

## 손예빈 소설 '버드나무 숲' 우수출판콘텐츠 공모전 선정

상금·지원금 1000만원...10월 출간  
최흥중, 서서평, 최원순 등 가난한 약자 편에서 서서평을 실정한 광주의 근대 인물들의 삶을 그린 손예빈(사진) 작가의 청소년 소설 '버드나무 숲'이 올해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공모전에 선정됐다. 상금 300만원과 도서출판 지원금 700만원 등 모두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버드나무 숲'은 버드나무 숲의 그늘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이들을 조명하는 소설이다. 일제의 폭압과 착취에 고통 받는 민초들이 언제든 가서 쉴 수 있는 숲의 그늘을 연상케 한다. 손 작가는 지난 2016년 광주 YMCA 회관에서 열린 오방 최흥중 서거 50주년 기념강연회에 참석해 오방의 삶에 큰 감동을 받고 소설 형상화를 기획했다. 이후 3년여 간 자료조사와 집필을 통해 이

아기를 완성했으며 오는 10월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손 작가는 "최흥중과 서서평, 우일선 선교사가 1880년생 동갑내기로 나한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동고동락하며 살았던 삶은 그 자체로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었다"며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 출신 손 작가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했으며 2006년 '약단지를 품에 안고'로 아동문예문학상을 수상했다. 2018년 장편소설 '호랑이가시나무 언덕'으로 2018 백호임제문학상 나주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엄마랑 아이랑 문화기자단' 모집 광주문화재단, 12일까지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엄마랑 아이랑 문화기자단 3기' (문화기자단)를 모집한다. 문화기자단으로 선발되면 기사작성을 포함해 역량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재단 주요 행사를 취재해 재단 블로그에 기사나 영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활동비와 기자증 지급과 아울러 재단 주최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받는다. 특히 올해는 특화된 문화공간 취재, 프리뷰 형태의 홍보 활동도 수행한다. 문화기자단은 아이와 엄마 5-7팀을 선발하며 활동 기간은 12월까지이다. 지원 희망자는 문화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12일까지 이메일(8113@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기획홍보팀 062-670-742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이형기 시인 '찔레꽃' 노래로 배우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12일 광주예총 방울소리공연장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제130회 공연이 12일 오후 7시 광주예총회관 지하 1층 방울소리공연장에서 열린다. '찔레꽃 피고 지는 그 언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최해춘이 진행하며 박원자 부회장이 기획·구성했다. 노래 지도는 박호진 광주합창총연합회장이 맡았고 피아노 반주는 황인화가 한다. 공연 첫 번째 순서로 김대현 작곡가가 이형기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찔레꽃'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된다. 추억의 노래로 '장안사', '언덕에서', '별', '그네'를 부른다. 정다운 노래로는 '또 한 송이의 나의 모란', '기다리는 마음'을, 사랑의 노래는 '떠나가는 배', '산촌'을 준비했다.

꿈나무 연주회 레인보우 우중창단이 '내 마음의 수채화', '아름다운 동화의 나라'를 연주하고 서혜란이 스페셜의 시 '지금 하십시오'를 낭송한다. 초청연주 무대에는 지음아카데미 중창단이 올라 '목련꽃'과 '비단안개'를 들려주며 소프라노 김미옥(사진)이 초청가수로 등장해 임원식 시인의 노래 '매화에게 묻다'와 '사랑이 오는 시간'을 선보인다. 무대에는 안숙자·봉필수·서우주·이현경·박송미·나인희·한중호·조정옥·조정식 등과 하모닉스 여성중창단이 오른다. 무료관람. 마스크 착용 필수. 문의 010-2694-4592.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b>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b></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p> <p>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p> <p>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p> <p>☎ 062)526-5475, 010-8621-5959</p>	<p><b>고 전 방</b></p> <p>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p> <p>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b>퀵 타로카드</b></p> <p>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신한은행 옆)</p> <p>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p> <p>타로마스터 ☎ 010-3640-6429</p>	<p><b>신신 예술의 집</b></p> <p>동구 궁동 예술의거리</p> <p>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b>장 어 수 산</b></p> <p>북구 서암대로 88(신안대리앞)</p> <p>무항생제 경어사용</p> <p>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선물포장해드립니다.</p> <p>신용부위</p> <p>☎ 062)412-1961, 010-5828-1961</p>	<p><b>미가한우명가</b></p> <p>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 뒷편)</p> <p>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p> <p>☎ 061)333-0505, 010-4390-3366</p>	<p><b>무크 광주세정점</b></p> <p>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2층 258호</p> <p>회사한복 신상품 대량 입고</p> <p>남·여 20~40%세일 (일부 품목 제외)</p> <p>☎ 062)370-9258</p>	<p><b>한성꽃화원</b></p> <p>나주시 나주로71(송월동 LG화학 옆)</p> <p>근조·축하화환, 동·서양관, 관엽 전국배달</p> <p>☎ 061)334-3200, 010-3623-6921</p>
<p><b>남 문 냉 동</b></p> <p>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p> <p>저온저장고제작·영업용 냉장·냉동수리</p> <p>에어컨 전문설치</p> <p>☎ 061)333-2779, 010-3610-2779</p>	<p><b>우리 뷔 페</b></p> <p>남구 지석동 73-5번지</p> <p>(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p> <p>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p> <p>(회사·단체장부 환영)</p> <p>☎ 062)381-0066, 010-3085-0140</p>	<p><b>개성전통한방삼계탕</b></p> <p>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p> <p>삼계탕전문점</p> <p>포장가능합니다.</p> <p>☎ 062)383-3454, 010-2106-0424</p>	<p><b>천상일월태주명</b></p> <p>나주시 남동동33-3번지 남고문뒤편</p> <p>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p> <p>☎ 010-2617-3635</p>
<p><b>대성각 중화반점</b></p> <p>동구 무등로306-6(구 시청뒤 도로변)</p> <p>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p> <p>전화주문시 신속배달</p> <p>☎ 062)430-5342</p>	<p><b>박 당 화 랑</b></p> <p>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거리)</p> <p>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한승 ☎ 062)222-6866</p>		